

통권 제 187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05

계룡 이야기
승가에서의 청결 (3)



향유
위로가 필요해!!



결망에 담긴 이야기
그 자신이 그것이
될 줄은 모른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중



부처님오신날 특집 28

생활불교 인간불교로
부처님 오신 날을...

와령 정사

독자기고 1 34

나이를 잃어버린
총지중 노보살님들

여순애

독자기고 2 56

아직은 산에
오르고프다

김정숙

2563
2019

05

04 불교이야기

10 계율이야기

16 살다보면

22 향유

28 부처님오신날 특집

34 산책

36 아름다운 세상

38 마음의 등불

42 생활 속 식물이야기

46 함께 만든 100년

52 독자기고 1

54 씨앗 한 알

58 디딤돌

60 거꾸로 보기

64 차항기

68 독자기고 2

70 걸망에 담긴 이야기

72 뜻 바꾸기

74 되짚어 보기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3 와령 정사

승가에서의 청결 (3) 법경 정사

엄마표 찐지 김밥 이옥경

위로가 필요해!! 강동현

생활불교 인간불교로 부처님 오신 날을... 와령 정사

향수 김대곤

행운의 작은 새 묘원화 전수

태종太宗의 은택恩澤에 젖어 정경세

정상과 비정상 이태용

독립의 발자취를 찾아서 1 자성 전수

나이를 잃어버린 총지중 노보살님들 여순애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라 법상 스님

참새가슴 지현전수

우리는 셋길을 택한 이들에게 빚지고 산다 박현희

차와 함께 하는 육법공양六法供養 김정애

아직은 산에 오르고프다 김정숙

그 자신이 그것이 될 줄은 모른다 법일 정사

금강계만다라 37존 (2) 김재동

등煙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땅 위와 하늘 아래 존귀하신 님
세상의 보배, 깨달음의 빛은
생명의 존엄성 선언하시고
고해 중생 건지시고자
지혜와 광명으로 사바에 강림하시네.

연꽃송이 피어나는 룸비니 동산
모든 생명 가운데 으뜸이시니
진리의 소리 사바에 울리네.

크나 큰 광명이 솟아
위로 하늘을 비추고
아래로 지옥에 뿔치니
하늘에서는 꽃비 내리고
땅에서는 감로의 샘이 솟는구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는 님이시어
눈부신 해님 되어 주소서.

사월이라 초파일

님이 오심으로

중생은 무명의 눈을 뜨고

지혜는 허공에 가득차며

자비는 온 대지를 감쌌네다.

- 동광스님(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계학이란 무엇인가 3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계의 형식과 종류(1)

계는 원래 자격이 있는 스승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계를 주는 스승을 계사戒師라고 합니다.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은 원래 계사로 부터 계를 받아야 합니다.

계를 받아 지님으로써 불교에 첫발을 내디디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입문하는 사람은 삼귀의계를 받습니다. 즉,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계를 받는 것입니다. 계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수계'라

고 하지만, 한자로는 주는 것을 '授戒', 받는 것을 '受戒'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계의식에 의하여 구족계具足戒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출가승이 되는 것입니다. 구족이라는 것은 모두 갖추어져서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구족계를 받으려면 우선 사미나 사미니계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사미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야 하며 나이는 만 20세가 넘어야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족계의 수계의식에는 먼저 계를 주는 계화상戒和尚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전계아사리傳戒阿闍梨라고 합니다. 아사리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계식을 주도하는 갈마아사리羯磨阿闍梨, 그리고 계를 받을 사람의 자격을 조사하고 그것을 입증해주는 교수아사리教授阿闍梨 등과 7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아사리와 7명의 증인을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고 하여 구족계를 받을 때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조건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출가시킬 때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다는 맹세만으로 간단하게 출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단이 확대됨에 따라 일일이 부처님께 와서 출가를 허락받는 것은 거리상으로나 시간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출가한 스



님들로 하여금 대신해서 출가를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출가를 허락하는 사람이나 출가지원자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이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출가지원자 중에는 빚을 지고 도망 오거나 군대를 기피한 사람, 혹은 죄를 짓고 도피처를 찾기 위해 출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등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집에서 먹여 살릴 길이 없어 부처님 밑으로 보내면 평생 입는 것 먹는 것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생각에 동네 아이들이 부모들의 권유에 의하여 집단으로 출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승단에서는 이들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출가를 허락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폐단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왕들이 불교를 존중하여 승단에는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범법자들이 도피처로 생각하고 출가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무자격자들의 출가를 규제하기 위하여 아사리를 정하고 또 이들의 출가를 입증할 증인을 세웠던 것입니다. 승가에서는 세속의 신분이나 지위, 명예, 연령 등은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 먼저 구족계를 받고 출가했는가에 따라서 선후배가 결정되었습니다. 구족계를

받은 햇수를 보통 법랍^{법랍}이라고 합니다. 구족계를 일찍 받은 사람이 법랍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이가 많은 왕족출신이라도 하천한 집안의 젊은이가 먼저 구족계를 받고 출가했으면 선배로서 우러러 보아야 했습니다. 석가족의 일곱 왕자가 이발사인 우빨리 보다 늦게 출가했기 때문에 우빨리에게 머리를 숙여야 했던 얘기는 유명합니다. 이런 일은 계급차별이 엄격했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서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습니다.

만인의 평등을 주장하는 불교에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처럼 언제 출가했느냐가 승단 안에서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승단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계를 받은 날을 따지는 것은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7명의 증인이 수계식에 참석하여 지켜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계를 주는 장소는 결계^{결계}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구획을 정하고 청결히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수계식의 장소를 계장^{계장} 혹은 계단^{계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획을 정한 이유는 어느 일정 구역 안에서의 자치와 의결에 의하여 계사가 정해지고 중사^{중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를 받기 위하여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스님들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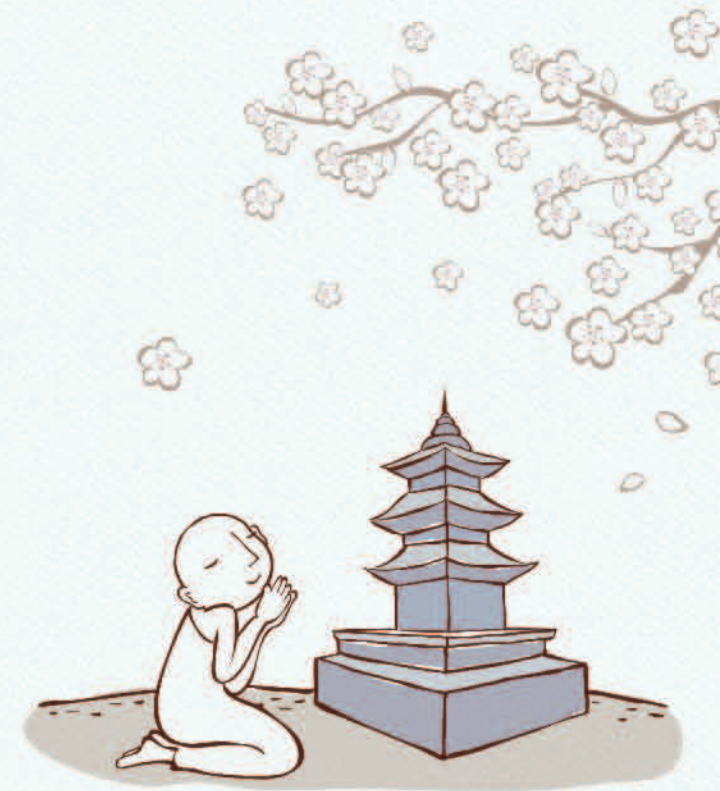
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계단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계단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곳에 만들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고정된 장소에 계단을 만들어 수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계식의 형식을 보면 보통 갈마아사리가 먼저 계를 받을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고 싶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계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교수 아사리가 갈마아사리에게 수계지원자가 계를 받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갈마아사리는 다시 수계지원자에게 틀림이 없는가를 묻습니다. 그런 다음 갈마아사리는 다시 다른 비구들에게 이 사람에게 구족계를 주어도 좋은가라고 묻고 이의가 없으면 침묵하고 이의가 있으면 말하라고 세 번을 묻습니다. 이렇게 세 번 물은 다음 이의가 없으면 정식으로 구족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갈마아사리가 한번 동의를 구하고 세 번 찬부를 묻는 것을 백사갈마(白四羯磨)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일백삼갈마(一日三羯磨)라고도 합니다.

구족계를 줄 때는 많은 계율 가운데에서 어기면 가장 중죄를 받는 4바라이(波羅夷, pārājika)죄를 어기지 말 것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사바라이죄는 사음, 절도, 살인, 깨닫지 않고 깨달았다고 하는 네 가지 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범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불제자가 아니라고

선언이 됩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사바라이죄라는 중죄를 범해도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족계를 받은 자만이 정식의 출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계에 대한 작법이 있어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



승가에서의 청결 (3)

법경 정사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청정한 계월 _ 48

승가는 단체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승가의 인락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규율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 생활을 위한 최소의 규범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청정과 청결, 위생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의 의복과 침구 관리의 물론이요 용모단정과 청결유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식^{藥食}, 탁발을 통해 얻어진 음식의 관리, 주거생활에서의 청결 등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음식관리와 주거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음식 관리

탁발을 통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승가에서 청결과 위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분율』의 법건도와 잡건도에서는 밥 먹을 때의 예법이나 바루에 관한 법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사분율』에서는 ‘음식을 묵혀서 먹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분율』권제14의 내용이다. 묵은 밥이라 함은 오늘 받아서 다음날에 이르는 것이니 모든 시문 석자로서 구족계 받은 이에게는 모두가 청정치 않는 것이다. …중략… 만약 비구가 묵은 밥을 두었다가 먹으면 바일제요, 때 아닌 때에 얻어서 때 아닌 때를 지나서 먹으면 바일제이다.

묵은 밥이란 오늘을 넘긴 밥을 말한다. 즉 오늘 받아서 내일로 넘기면 이는 묵은 밥이 된다. 밥을 묵혀서 먹어서는 안 된다. 탁발로 얻은 음식은 그날 모두 해결한다. 이는 음식을 저장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면도 있지만,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가자의 무소유를 말하고 있다. 하루를 넘긴 음식을 먹으면 바일제에 해당하며, 이는 청정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다. 즉 묵은 밥을 먹는 것은 청정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구족계를 받은 사문의 위위가 아니며, 위생상으로도 청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때를 가려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때가 아닌 때’에 먹어도 바일제에 해당한다. 때 아닌 때는 한낮으로부터 새벽 광명이 솟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때에 밥을 먹어서는 안 된다. 즉 오후불식(午後不食)을 말하고 있다. 정오를 넘겨서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때는 새벽 광명이 솟은 뒤로부터 한낮까지이다. 즉 오전시간뿐이다. 음식을 묵히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음식이 상하기 쉽고 이로 인해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음식에 있어서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식중독을 염려한 측면이 크다.

🌸 청결은 음식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예외가 아니다

밥뿐만 아니라 마시는 물도 청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마실 물은 깨끗해야 하므로 반드시 깨끗한 물을 떠야 하고 물병을 잡을 때에도 먼저 손을 씻고 잡아야 하며 물을 뜰 때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떠야 한다. 만약 물이 더워지면 풀이나 나뭇잎으로 덮어서 그늘을 지어 더워지지 않도록 하고, 만약 벌레 섞인 물을 쓰더라도 반드시 더러운 것을 걸러내는 주머니를 만들어 물을 떠야 한다고 율장에

서는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 정수기의 역할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만약 주머니가 없으면 가사 자락으로 걸러서 마셔야 한다. 오늘날 식수**에 대한 건강수칙과 다르지 않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항상 씻어서 먹어야 하고,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마실 물이나 먹을 음식 뿐만 아니라 손이나 그릇도 마찬가지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석존은 비구니들이 물을 마실 때 그릇을 씻지 않으니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마시라 하였고, 물을 마신 뒤에는 그릇을 씻지 않으니 반드시 씻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지 않은 데서 발생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이 증명하고 있다. 이미 석존은 2600여 년 전에 식생활에서의 청결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석존은 세상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만은 아니다. 그가 가르침 속에는 청결과 건강수칙이 포함되어 있다.

🌸 더러운 손이 발병(發病)의 원인

석존의 지적을 계속해서 살펴보자. 더러운 손으로 그릇을 잡지 말라고 한다. 오염에 노출되고 발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걸식을 나갈 때는 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주머니에 싸서 나가야 한다. 그 이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바루를 씻지 않아 병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석존은 바루를 씻으라고 명하였다. 어느 날 어떤 비구의 바루에 뱀이 토하였는데 이를 씻지 않



고 걸식하러 나가서 받은 음식을 먹고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다. 그래서 석존은 탁발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바루를 씻어야 한다고 하였다.

식사 후의 청결수칙

이와 같이 청결과 위생은 식생활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발병^{發病}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방이 제일인 이유다. 청결과 위생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걸식과 음식을 먹을 때에만 청결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후에도 청결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바루를 둘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뒹야 하고, 바루 씻은 물과 음식 찌꺼기는 땅 위에 어지럽게 버려서도 안 된다. 또 바루 씻은 물을 함부로 버리면 땅이 질드로 통에 모아서 버려야 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바루로 담아서 안 되며, 반드시 쓰레받기로 쓸어들 버리고 항상 바루는 깨끗하게 보관해야 한다. 청결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남은 음식을 잘 처리해야 하고, 정리 정돈 또한 필수다. 그래서 남은 음식은 풀이 없는 땅과 벌레 없는 곳에 부어야 한다.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밥을 담은 그릇[바루]를 깨끗이 씻어서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하며, 앉은 자리나 발 씻는 돌, 물그릇 등도 제자리에 두고 밥 먹은 자리도 항상 깨끗하게 소제해야 한다. 청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밥을 먹고 나서 과일 껍질과 나물 뿌리들을 어지럽게 버려서 땅이 지저분해지므로 먹고 난 뒤 버릴 것이 있으면 발 옆에 모아 두었다가 떠날 때 갖다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의 청결까지 챙긴다

청결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비구가 걸식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 때, 먼지, 새 똥이 묻지 않았는지 살피고 닦아주고 털고 빨아서 평상 위에 말려주고 발 씻는 돌, 발 닦는 수건을 내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손을 깨끗이 씻고 나서 물과 음식을 건네주어야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청결까지도 배려하고 있다.

공중도덕

청결과 함께 공중도덕 또한 강조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물을 떠주면서 말을 하여 입안의 침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말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말해야 한다. 또 식사 중에 크게 기침하여 침이 튀어나지 않도록 하고 옆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트림한 음식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다시 삼키라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대중생활에서의 위생과 청결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서 공중도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음식이나 식사 때의 청결과 위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생활의 질서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승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청결과 위생이 언급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출가자의 위의, 바른 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계율은 수행자의 수행력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청결과 건강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마표 짬지 김밥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빼꾸기가 운다. 친정엄마의 제사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시간 날 때 일찌감치 산소에 다녀올 생각으로 김밥을 쥘다. 엄마표 짬지 김밥이다. 어릴 적, 내 고향에서는 김장 배추김치를 짬지라고 불렀다.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음식, 엄마가 그리울 때면 나는 언제나 시금치 대신에 곰삭은 김장김치를 물에 헹궈 쭉쭉 찢어 넣고 김밥을 쥘다. 쌀 때도 눈물이 뿜 돌고, 먹을 때도 목이 메는 김밥이다.

엄마는 7대 독자인 할아버지의 세 며느리 중 맏며느리로, 가장 먼저 시집을 왔다. 하지만 1~2년 사이로 결혼을 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던 작은엄마들이 딸을 하나씩 낳을 때까지 수태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니 시부모인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눈에 고와 보일 리가 없었을 터. 엄마는 친정에 데려다주라는 할아버지의 엄명에 소박데기가 되어 외가로 쫓겨 왔다. 저만큼 앞서가는 아버지를 따라 뽕뽕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면서 얼음이라도 깨져서 풍덩 빠져 죽었으면 싶었다던 엄마는, 유배지나 다름없었던 외가에서 그러도 간절히 원하던 태기를 느꼈으니, 그게 바로 나였다.

엄마나 아버지의 기쁨은 컸지만, 맏아들에게서 늙은한 맏손자를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실망은 하늘을 찔렀다. 셋이나 되는 아



들로부터 세 번째로 보게 된 손녀인 내가 눈에 찰 리가 없었다. 나보다 한두 살 위인 사촌 언니들은 눈치코치가 뻘해서 할머니 눈 밖에 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지만, 천둥벌거숭이 같은 나는 남들이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기어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로부터 “쫓쫓쫓…! 고추라도 하나 달고 나올 일이지. 남동생도 못 보는 것이!” 하는 지청구를 들어야 했지만 내게는 마이동풍. 할머니의 눈총이야 쏟아지든 말든 마이 웨이(My way)! 그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사람이 엄마였고, 고집불통인 나로 인해 가장 큰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 사람도 엄마였다.

초등학교 1학년 봄 소풍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풍 날짜가 정해지고, 친구들로부터 김밥을 싸서 간다는 얘기를 들은 나는 또다시 몇 날 며칠을 김밥 타령을 하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겨우 남동생 하나밖에 못 본 것이!” 하는 할머니의 역정뿐. 그동안에 내게도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생겼지만, 무엇이든 손자가 먼저라야 하는 할머니에게 손녀가 먼저 김밥 도시락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이야 값도 싸고 종류도 많고 흔하게 널린 것이 김밥이지만 예전에는 봄가을 소풍 때나 한 번씩 맛볼 수 있었던 별식 중의 별식이 바로 김밥이었다. 귀한 만큼, 당연히 손자가 먼저…, 즉 손녀가 먼저이면 안 된다는 게 할머니의 지론이었으니. 녀석지 않은 살림인 데다가 그때만 해도 할머니가 곳간 열

쇠를 쥐고 있었고, 결혼한 지 5년 만에야 딸을 낳아 간신히 칠거지악의 면죄부를 받은 엄마에게는 할머니의 뜻을 거스를 만한 능력도, 배짱도 없었을 터였다. 이웃에 사는 사촌 언니들도 소풍 때 김밥을 싸간 적이 없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종주먹을 들이댔다.

소풍날 아침, 엄마는 끝내 김밥을 싸지 못했다. 할머니가 ‘귀한 장손이 학교에 갈 때까지’라는 엄명 아래, 손녀들이 김밥 도시락을 들고 소풍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촌 언니들은 시무룩한 얼굴로 여느 때와 다른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했지만 난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소풍을 가지 않겠다며 발버둥질을 쳤다. 그런 나를 본 체만체 엄마는 빨랫감이 담긴 커다란 대야를 이고 마을 앞 냇가로 향하셨다. 소풍도 가야 하는데…! 김밥은…!! 다급해진 마음에 목청을 높여 봤지만,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예쁜 모자도 쓰고, 빨간색 타이츠도 신고, 등에다가 무슨 가방(배낭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다)도 둘러메고, 음료수가 든 물통을 달랑거리며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아이코!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냇가로 달음질 쳤다. 나도 소풍을 가고 싶었다. 소풍을 가야 했다. 다른 아이들처럼 김밥이라는 걸 싸 들고 롤루랄라…!

내가 냇가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대야에 가득 담겼던 빨래를 헤쳐 놓은 채 김밥이라는 것을 싸고 있었다. 편편한 돌맹이 위에 김을 펼쳐



놓고 밥 한 줌, 그리고 그 위에 길게 찢은 김장김치 하나... 난생처음 보는 김밥이었다. 엄마가 왜 넷가에서 김밥을 싸는지 알 바 없는 나는, 김밥 애기는 절대 비밀이라는 엄마의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신바람을 냈다.

하지만 그날, 내 생애 첫 소풍이었던 그날, 내가 의기양양하게 펼쳐 놓았던 김밥은 단무지며 달걀, 소시지가 들어간 친구들의 김밥과는 너무도 달랐다. 자르지 않은 김밥은 불그죽죽한 김치 국물에 불어 옆구리가 터지거나, 한 입 베어 물면 찐지의 배춧잎이 통째로 쭉~ 달려 나왔다.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볼세라, 도시락 뚜껑을 덮을 수밖에. 김밥 하나 제대로 못 싸는 엄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분기탱천해서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머니와 함께 집 앞 텃밭에 고추 모종을 심고 있던 엄마 앞에 도시락을 집어던지면서 엄마는 김밥도 쌀 줄 모르냐며, 창피하게 김밥에다 찐지를 넣는 게 어디 있냐며 참았던 울음보를 터뜨렸다. 그날, 그 김밥 사건 이후, 나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사촌 언니들도 모두 소시지까지는 아니어도 단무지와 달걀, 시금치가 넉넉하게 들어간 김밥을 들고 소풍을 가게 되었지만 내 생애 첫 소풍, 첫 김밥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가끔 여덟 살의 어린 나를 떠올리며 왜 그랬느냐고,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해도 왜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느냐고 묻고

또 물어보곤 한다. 단발머리 꼬맹이를 가슴에 안고 괜찮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등을 토닥여주던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릴 듯한데..., 발고랑에 내동댕이쳐진 도시락에서 쏟아져 나온 옆구리 터진 김밥을 주워 담느라 허둥거리던 엄마는 어느새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얹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얹은 후 백천 겁 동안 천지를 돌아다녀도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준 하루의 은혜마저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부모는 내 몸을 기르고 내 마음을 열어 광명을 보게 해 주었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며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때문에,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그 은혜의 천분의 일도 갚지 못할 것이다.’

양지바른 엄마의 산소, 엄마표 찐지 김밥을 앞에 놓고 앉으면 엄마는 웃으실까, 그때처럼 그렇그렇 눈물지으실까. 찐지 김밥에 <출요경> 한 대목을 슬쩍 더 읽어본다. ♫





바다가 문득 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가까운 바다에라도 다녀와요.” 라고 했다.

“나는 지리학적인 바다를 말한 게 아니라고요.”

내 말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바다나 저 바다나 같지 않아요?” 하기에 낭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바다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고향 바다를 보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눈치도 없다고 티박을 하고는 모든 일정을 미뤄놓고 고향 바다로 떠났다. 내가 이토록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처음 알았다. 딸을 놔두고 갈 수 없어서 급하게 체험학습을 쓰고 대책 없이 바다로 가버렸다. 이렇게 대책 없이 무엇인가를 했던 것이 얼마만인가 싶을 만큼 뜬금없는 행동을 했다. 물론 내가 좀 오래 사춘기를 겪고 또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기도 했지만 그 때의 감정과는 사뭇 다른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알 수 없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서원당에 가서도 울었고, 염송하다가도 울었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염송 하다가 염주 내 던지고 밖으로만 돌았다. 햇살이 좋아서 눈물 나고 바람이 불어서도 눈물이 나고 꽃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아주 요상한 감정들로 힘들었다. 울어서 슬픈 것인지 슬퍼서 우는 것인지 잘 몰랐다. 가만

히 있어도 눈가가 축축했다. 고향 바다에 가서는 그냥 바닷가에서 그네를 타고 싶었다. 그네가 있을 리가 만무하지만 바람을 맞으며 좀 여유를 부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신기하게도 아무 것도 안 하는데도 꾸벅꾸벅 딸이 잘 따라 왔다. 심심하다고 수 십 번을 말했을 사춘기 딸이 바닷가를 맨발로 같이 걸어 주었고, 물미역도 같이 건졌다. 카페에 들러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바다 소리도 잔잔히 들어 주었다. 시도 쓰고 편지도 쓰고 추워서 덜덜 떨 때까지 바다에 있었다. 또 꽃들은 지천으로 피었고, 하늘도 맑고 바람도 달달했다. 그렇게 콧바람을 쐬고 돌아오니 좀 살 것 같았다. 출근했더니 동료들이 내 건강을 걱정했다. 아파서 출근을 못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걱정해주는 동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곧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돌아와서는 물론 아주 많은 일들을 했다. 일요일에도 출근을 했고, 이런 것이 싫어서 여행이나 놀러 못 간 것이다. 끝나지 않는 일들. 높은 연봉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게 허무했다.

뭐, 벌어 놓은 돈도 없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사람이 무슨 사치냐고 내 먼저 그런 것들을 단속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돈을 얼마나 벌고 또, 무엇을 살 것에 중심을 두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살아 온 날들을 되짚어 보았다. 다른 사람에게는 착하게 보이고 너그려워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나 자신한테는 너그럽지 못하고 각박했던 것 같다. 생각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 되었고, 그 생각들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내가 막 불쌍해 보였고, 기슴도 벌렁벌렁하고 숨도가

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다에 잠시 갔다 온 것이 조금 위안이 되었다. '틈만 나면 이제 바다로 도망가야지'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내 사무실 복도 앞에서 나보다 10살 이상 많지만 자주 말을 나눈 사이는 아닌 동료랑 부딪칠 뻔 했다. 그 분한테 내가 살갑게 말을 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개인 적인 말을 나눌 사이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날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좀 어색하지만 내 상황을 이야기 하니까 자기도 이런 것을 겪었던단다.

나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좀 안심이 되기도 했다. 자기는 심해서 우울증 약도 먹었다고 했다. '나는 그 정도인가?' 하고 자기 검열을 해 보았더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년들이 겪는 갱년기를 나는 겪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갱년기에 좋다는 식품도 잘 챙겨 먹는데 사춘기랑은 다른 어떤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 갱년기 증상이었던 것이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도 물어 보고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한테도 물어 보았다.

다들 겪고 있고 이미 겪었던 애들도 있었다. 나보다 심한 친구는 제주도 몇 번씩 친구들과 간다고 했다. 갱년기가 안 온 친구들은 바빠서 갱년기가 뭐냐고 농담을 했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쫓고 까불었다고 말을 해 주었다. 친구들과 한참을 수다를 떨고 나니 눈에서 눈물이 덜 났다. 나는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떨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나이 들면 친구들이 좋다고 하더니 수다를 떠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갱년기를 겪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심

했나 싶어 물어 보았더니 “난 갱년기 없었는데?” 한다. 되짚어 보니 친구들과 놀러 많이 다니던 때가 남편의 갱년기였나 보다. 남편이 열과 오한이 번갈아 일어나던 때를 내가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며칠 전에 내가 열이 나다가 오한이 나서 이까지 딱딱 소리 나게 떨었던 적이 있었다. 남편이 한참을 토닥거리주고 나서야 그 떨림이 멈추었는데 너무 놀라서 큰 병이 난 줄 알았다. 그것도 겪은 자들의 증언으로 보면 갱년기 증상이었는데 말이다.

남편의 갱년기를 몰랐던 것이 미안해서 남편한테 사과를 했다. “어떻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왔어요?”하고 물어보니 남편은 역시나 자기는 절대로 갱년기가 아니라고 하더니 웃었다. 어른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나이 먹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 들수록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더니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와 주변 어르신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가끔 진짜 짜증나고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 때문인데 이것도 호르몬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한다.

“에구, 나이 들면 눈물이 많이 난다.” 는 말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이 들어가고 있는 나는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 모르게 철철 흘러고 다닌다. 내가 뚱뚱한 것은 눈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흰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제 조금 감정들이 돌아오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이 드는 것에 준비를 하라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아마 이런 감정의 기복들도 있지 않았을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하던 동료한테서 뜻하지 않게 위로를 받고 난 뒤, 나는 출근을 하면 먼저 그분 사무실에 들러 인사를 한다. 그분도 내 사무실에 들러 괜찮은지 물어 봐 주신다. 아주 더디게 이 시간을 건너가고 있다고 하고 마주 보고 웃는다. 나는 지금 여유로운지 각박한 건지 모를 내 질풍노도의 시기를 진짜 더디게 건너가고 있다. 그러는 바람에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은 사춘기인지 뭘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엄마의 갱년기에 질려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다음에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꼭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보니 딸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서로 잘 건너가자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자고 말을 했다. ♣



생활불교 인간불교로 부처님 오신 날을...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이번 달 5월 12일은 음력 4월 8일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과거에는 '불탄일(佛誕日)'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부처님오신날'로 부르면서 전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기 때문에 흔히 '조파일'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불교 의식이 민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전 국민의 축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계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래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입니다. '고타마'는 '가장 훌륭한 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소를 신성시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석가족의 별칭으로 추측됩니다.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혹은 '일체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개고 오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온 우주에 내가 가장 존귀하니 내가 마땅히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멸하고 편안히 하리라)'라는 그 유명한 탄생계(誕生偈)를 외쳤다고 합니다. 탄생계 안에는

부처님의 탄생 의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로지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과 다름 없습니다. 크나큰 자비로써 우리 중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일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조작하거나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화복을 결정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청정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가 태어났다 사라졌지만 불교와 같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들을 보면 불교가 얼마나 평화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종교인지 알 것입니다.

이제 불교는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 지성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불교가 미래의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종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불교의 긴 역사를 통하여 불

때 불교만큼 평화적인 종교는 없었습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나 기독교의 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빚어진 살육, 이슬람의 아시아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파괴 등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더라면 인간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테러라든가 중동의 종족 간 싸움은 모두 종교적 견해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와 같은 잔인무도한 행태들을 볼 때 모든 생명의 조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더구나 불교의 기본 교리는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진치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교도들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지 결코 외부의 적을 찾아 한풀이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불교도들에게 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평화적이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불교를 이웃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불교를 더욱 알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생활불교, 인간불교로 새롭게 태어나야

불교가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행위 하나하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야 하고 사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오계 준수와 육바라밀의 실천 없이는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불교는 재가불자들의 역할이 더욱 큼니다. 출가승에만 의지해서 불교를 바라보던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격리된 산중불교는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되는 불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출가정신이 퇴색하고 출가환경이 예전과 같지 않은 지금의 시대는 부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생활불교라야 합니다. 불교의 바른 이해를 통하여 ‘불교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불교화’하도록 우리 재가불자들은 더욱 노력 정진해야 합니다.

현대불교는 재가불자들이 이팔이 나가야

불교의 근본이념과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뜯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면서 그것이 불교인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혼자서 잘못 알고 있거나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사람들을 무

식하다고 알보기도 합니다. 자기가 제대로 몰라서 어려운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줄은 모르고 듣는 사람이 근기가 열다는 등, 하근기(下根機)라는 등 하면서 무시합니다.

불교를 이끌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불교가 대중들과 좀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불교의 현대화작업에 힘써야 합니다. 산중 절이나 지키면서 입장료 수입에나 의존하며 하루하루 무위도식하다시피 살아가다가는 이 땅에서 어느 날 불교가 명맥을 다해버릴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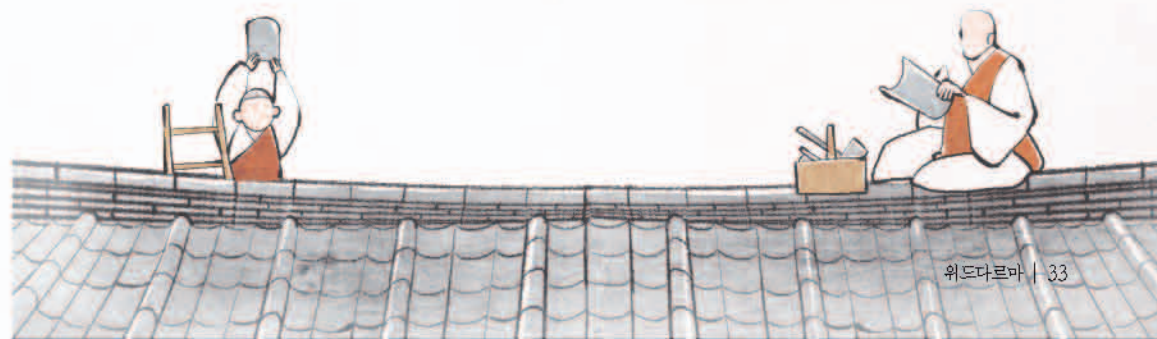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불교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의 득세 속에 이제는 어디 가서 불교도라는 명함도 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도인 사람들도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기 싫어 자기가 불자인 것을 감추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되고부터 1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지난날의 불교 역사를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를 역설하는 불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전락해 버린다면 인류의 정신적 발전에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러한 점을 각성하여 신심을 더욱 돈독히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불교를 널리 알림으로써 자비와 평화가 가득 찬 불국정토를 건설하는 것이 또한 우리 불자들의 책무입니다.

특히 재가불자 중심의 오늘날의 불교에서는 일반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수준이 향상되어야 불교지도자들도 교학면에서나 수행면에서 더욱 노력정진하게 됩니다. 불자들이 기복에만 매달려 불상 앞에 절만하는 불교가 되어서는 진정한 불교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직자들 또한 기복에만 의지하여 부처님을 팔아먹는 안이한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뼈와 살을 깎는 노력으로 자신의 인격도야는 물론 불자들을 정도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승속이 일심동체가 되어 불교중흥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금 불교의 찬란한 광명이 드리워지도록 하는 것이 불은에 보답하는 길이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6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불교, 인간불교를 실천하여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거듭 태어납시다. 정성을 모아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고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봅시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하며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가 하루 빨리 앞당겨 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



쫄그라져 있던
계절에 비가 내린다.

수박같은 냄새가 난다.

겨울배경의 삼화처럼
움직임 멀던 나무에
유리알이 깜박인다.

감혀있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슴 밑바닥
감춰져 있던
습관적 푸르름의 갈망도
기지개를 편다.
냄새가 난다.

결코 뿌리칠 수 없는
이 계절의 진한 향기가
톡 톡
어깨를 터치한다.

향수에 취한다.
한동안 깨어나지 못할것 같다.



행운의 작은 새

묘원화 전수
벽통사

옛날 입만 열면 나쁜 말만 쏟아내는 새가 있었습니다. 푸르딩딩한 얼굴에 뽀얀 털을 가진 작은 새입니다. “바보, 멍청이, 너 미워, 투덜투덜…” 쉬지 않고 떠드는 새 때문에 괴로웠던 주인은 ‘꿀 먹은 병어리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말을 못하게 만드는 마법 사탕입니다.

사탕을 먹은 새의 배는 점점 부풀어 올라 ‘펑’ 하고 터져 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 주인은 새에게 ‘원래대로 사탕’을 주었습니다. 새는 금방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을 헐뜯고 모진 말을 쉴새없이 떠드는 작은 새로 말입니다.

새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새를 변화시킬 좋은 방법이 있을까?’ 깊은 생각 끝에 주인은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나쁜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나쁜 말 항아리’입니다. 주인은 새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으면 항아리 안에다 마음껏 하라고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나빠. 궁시령 궁시령……”

새가 말을 시작한지 5분도 지나지 않아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무나 실망한 주인은 마지막으로 ‘좋은 말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야, 이리 와 보렴. 이건 ‘좋은 말 항아리’란다. 여기에다 좋은 말을 한번 해 보겠니? 넌 잘 할 수 있을거야. 아주 똑똑하니까.” 똑똑하다는 말을 들은 새는 항아리

에 좋은 말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음……어……?’ 하지만 지금까지 나쁜 말만 해 온 새는 어떤 좋은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새야, ‘고마워’는 어때니?” 새는 주인을 따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곰……아……워.” 그 순간 항아리에서 환한 무지개 빛이 반짝였습니다. 새는 너무 신기해서 계속 외쳤습니다. “사랑해!”, “행복해!”, “아름다워!” 새는 하루 종일 좋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말이 생각나면 얼른 항아리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전혀 다른 새가 되었습니다. 보들보들한 하얀 깃털에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 바른 말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녀석을 ‘행운의 작은 새’라고 부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되도록, 부정적인 마음보다 바르고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고 사용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새가 무지개 빛을 보기 위해 온종일 좋은 말을 떠올렸듯이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생각하면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나쁜 말을 참거나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함으로써 좋은 말, 바른 말 수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알려면 매순간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은 나쁜 말을 쏟아내는 새입니까, 행운의 작은 새입니까? 🌈

태종太宗의 은택恩澤에 젖어

정경세(鄭經世)

1563~1633

조선 중기 문신



沒世猶流澤
於戲不可護
年年是日雨
點點聖王恩
淨洗芸黃色
昭蘇喝死魂
星言觀四野
喜氣滿乾坤

몰세유유택
오희불가환
연년시일우
점점성왕은
정세운황색
소소갈사혼
성언관사야
희기만건곤

돌아가신 뒤에도 은택 흐르니
아아 선왕을 잊을 수 없도다
해마다 이날에는 비가 내리니
방울마다 성왕의 은덕이고 말고
누렇게 시든 잎들 씻어 주고
말라 죽는 혼을 소생케 하네
새벽에 나가 들판을 바라보니
온 세상에 기쁜 기운 가득하구나

-『우복집』 권2

음력 5월은 여름이 깊어가는 때다. 농촌에서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망종^{芒種}과도 열추 시기가 겹치는 이때 농부들은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한다. 벼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시기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5월에 내리는 비는 생명과도 같다. 시에서는 5월 10일에 비가 내린 일을 기리고 있는데 정경세가 제목에서 말한 올해는 1614년(광해군6)이다. 1422년(세종4) 초여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다. 계속되는 가뭄에 국왕은 거의 모든 산천에 두루 기우제를 올렸는데도 효험이 없었다. 세종에게 양위하고 병석에 누워 있던 태종(太宗, 1367~1422 재위 1400~1418)은 이를 깊이 근심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 상제^{上帝}께 고하여 단비를 내리게 하겠다고까지 하였는데 5월 10일 결국 승하하셨다. 그리고 잠시 뒤 경기 일원에 큰비가 내려 그해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 백성을 걱정하던 태종의 정성이 하늘을 정말로 감동시켜서였을까? 이후로 매년 5월 10일이 되면 으레 비가 내렸고 백성들은 이 비에 태종우라는 이름을 붙여 태종을 잊지 않았다. 태종우를 소재로 시문을 남긴 문인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서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역시 「태종우(太宗雨)」란 제목의 시를 남기고 있다.

聖主乘龍二百年	성주승룡이백년	성군께서 승하한 지 어언 이백년
一言憑几信如天	일언빙계 신여천	침석의 유명 ^{聖名} 이 하늘처럼 미더워라
至今五月初旬日	지금오월초순일	지금에 이르도록 5월 10일만 되면
每沛甘霖潤旱田	매패감림윤한전	늘 흠족하게 메마른 땅 적셔 주네

- 『추탄집(楸灘集)」 권1, 「태종우(太宗雨)」

기우제를 지내고 이를 뒤인 이날도 비가 오지 않아 영조는 태종처럼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앞서 1월 말에 2백 년 동안 거행하지 않았던 천경제^{錢耕禮}까지 하는 등 풍년을 위해 각별히 힘쓰던 해였는데 가뭄이 계속되니 더 안타깝고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영조는 오수채의 말을 듣고 곧장 주서^{周書}에게 『추탄집(楸灘集)』을 가져 오게 하여 시를 읽고 선왕을 사모하는 마음을 토로하였다.

박동량의 『기재사초』, 홍석모의 『동국세시기』, 이유원의 『임하필기』 등에 수록되고 민간에서 설화처럼 전해 내려오던 태종의 고사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확실치 않다. 『세종실록』에는 1422년 4월 7일에 경상도에 눈이 내리고 20일에는 거센 바람과 천둥번개에 우박까지 내렸다는 기록은 있어도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은 없다. 게다가 그해 5월 10일에 비가 내렸다는 기록도 없다. 하지만 태종의 승하 이후 2백 년이 다 되도록 5월 10일에 비가 안 온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신령스러운 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어쩌면 5월에 비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백성들이 5월 10일에 으레 내리던 비를 신성화하여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태종우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몰라도 태조우^{太祖雨}, 효종우^{孝宗雨}라는 말까지 전해오는 것을 보면 비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된다. 참고로 태조우는 태조의 기일인 5월 24일, 효종우는 효종의 기일인 5월 4일에 내리는 비를 일컫는 말이다. 올해도 음력 5월 10일에 태종께서 단비를 주실 것인가?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변구일 선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정상과 비정상

- 튤립Tulip

이태용

원예 교육가



쉽고도 빠른 퀴즈 하나

꽃에 대한 문제 두 개를 낼게요. 어떤 꽃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아맞춰 보세요.

첫 번째, 이 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네덜란드에서 아주 큰 인기를 누렸다. 아니, 인기보다는 보물 대접을 받았다는 게 더 옳은 표현 일지도 모르겠다. 이 꽃으로 투기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번 사람도, 재산을 몽땅 날린 사람도 나왔으니깐.

훗날 사람들은 이 꽃에 열광했던 그 당시를 ‘○○꽃 광기시대’라고 불렀으며,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상드르 뒤마는 그런 세대를 테마로 『검은○○』이란 소설을 쓰기도 했다. 자, 이렇게 한때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이 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은 무엇일까? 외국의 한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1등으로 뽑힌 게 바로 이 꽃이었다. 이 꽃은 색깔이 예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생김새가 가장 먼저 눈에 뜨인다.

나는 이 꽃을 볼 때마다 임금님들이 쓰던 왕관이 떠오르곤 하는데, 옛 사람 중에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슬람교도나 인도인이 머리에 둘러 감는 터번이 이 꽃과 모양이 비슷해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는 설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와! 예쁘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웬지 동화 속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꽃, 과연 이 꽃은 무엇일까?

병 걸린 꽃에 열광하다

눈치 빠른 분, 아니 제목을 본 분이라면 벌써 알아차렸을 것이다. 정답은 바로 튤립이다. 몇 백 년 전에는 투기의 대상으로 어른들의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꽃. 동화 속 왕자님, 공주님의 정원에 가장 어울릴 것 같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놀이 공원을 장식하는 꽃. 그게 바로 튤립이다.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실제로 튤립은 그리 유복한 환경의 꽃이 아니다. 원래는 극심한 추위와 더위라는 가혹한 환경을 견뎌 내며 살던 식물이다. 건조한 모래 바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땅에 봄비가 잠깐 내리면 튤립은 기다렸다는 듯이 꽃을 피운다. 황무지에 피는 빨강과 노랑의 커다란 꽃송이. 그 모습을 보고 고대 사람들은 튤립을 ‘신의 꽃’이라 불렀다.

신의 꽃 튤립과 가장 인연이 깊은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터키와 네덜란드이다. 우선 터키는 튤립을 맨 처음 원예식물로 재배한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튤립을 심은 곳은 술탄의 정원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의 일이다. 1574년에 5만 개, 1579년에 50만 개의 튤립 알뿌리가 정원에 심어졌다 하니 봄이 되어 온통 튤립으로 뒤덮였을 정원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황홀하다.

이렇게 재배하여 모은 알뿌리로는 교배를 해서 다른 품종의 튤립을 만들었다. 비록 지금은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그 당시 만들어 낸 품종 수가 무려 2,000종이나 됐다고 전해진다.

네덜란드 또한 터키만큼이나 튤립을 사랑했던 나라이다. 조그만 튤립 알뿌리 하나에 온 국민이 울고 웃었을 정도니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튤립광 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튤립 가운데 얼룩 무늬 튤립의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얼룩 무늬가 특이할수록 값도 비싸고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튤립의 얼룩 무늬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결국 사람들은 병에 걸린 튤립에 열광한 셈이다. 물론 당시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리가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코미디 같은 일이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상대적

21세기의 역사가 한 줄 한 줄 쓰이고 있는 지금, 우리는 300년 전 튤립에 미쳤던 네덜란드 어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저 투기에 눈이 멀었던 한심한 사람들로 봐야 할까? 프랑스의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레비스트로스의 말대로 하자면 그때 그 시대를 살았던 네덜란드 어른들에게는 튤립 알뿌리로 투기를 하는 행동이 정상이었을 것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겠지. 이제 우리의 미래로 눈을 돌려 보자. 지금으로부터 300년이 흘렀을 때 과연 그때의 어른들은 300년 전인 지금의 어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를 역사책에서 읽고는 ‘그때 사람들은 아파트라고 하는 콘크리트 박스 속에서 많이 살았는데, 그걸 사고팔면서 돈을 벌려고 난리가 났었다는군.’하고 얘기하지 않을까? ‘지금은 거의 쓰는 사람도 없는 영어를 배우려고 네다섯 살 아이들도 학원을 다녔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우리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정상이 아닐 수 있다. 우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직 가 보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이의 온 몸에서 자라고 또 사라난다. 아이의 현실이 꿈이 되고, 아이의 꿈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다. ▲



독립의 발자취를 찾아서 1

자성 전수
법성사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입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려는 수많은 독립운동 선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씀처럼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몸바쳐 희생하신 독립운동 선열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점점 잊혀져가는 독립운동 선열들의 발자취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3.1운동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만세운동입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 그리고 타국 땅에서도 울려 퍼진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을 향한 외침이지요.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중심이 된 사건이 일본 동경 조선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입니다.

일본에 유학중인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에게 주권을 잃고 식민지배를 당하는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분개하여 세계에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외친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가 송계백

1919년 1월 식민지배에 대한 내용과 우리의 독립의지가 담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족지도자들에게 만세시위를 알리고 고국에서도 만세시위에 동참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선언문을 들여오게 된 것입니다. 이 큰 뜻을 품고 독립선언문을 들여온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계백이라는 유학생입니다.

송계백은 삼엄한 일본의 감시를 피하고자 독립선언서를 비단수건 위에 잔글씨로 써서 사각모에 감추어 무사히 민족지도자들에게 전달하여 만세시위의 불씨를 밝혔습니다.

민족지도자들은 일본에 있는 어린학생들의 독립의지에 대해 큰 깨달음을 얻어 국내에서의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송계백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1919년 2월 8일 역사적인 2.8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일본경찰에 연행되어 안타깝게도 24살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우리 조선의 유학생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린학생들의 뜻을 이어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기 위해 최남선선생의 기미독립선언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라는 큰 거사를 앞둔 이틀전...

모든 것이 무산될 뻔한 두 번의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잘 알려진 일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기미년 2월 26일 늦은밤...

지금의 안국동 자리에 위치한 천도교 소속의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거사에 쓰일 독립선언문 인쇄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인쇄소의 불빛이 새어나와 그당시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한 친일파경찰 신철에게 들켜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당시 친일파들은 일본인이 될 수 없기에 일본에게 인정받기위해 더 악랄하고 잔혹한 탄압을 한 인물들이지요.

이때 인쇄소 대표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이종일 선생님께서 신철앞에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의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보시오 당신도 조선사람 아닙니까... 지금 당신의 결정에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시오’라며 간절한 호소를 한 후 곧바로 손병희 선생을 찾아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손병희선생께 5,000원을 받아와서 그것으로 위기의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5,000원은 그 당시 쌀 120가마니의 가격으로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신철은 3.1운동이후 배신을 눈치챈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지 미리 준비해둔 청산가리를 마시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냉혹한 일본경찰로 민족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의 침묵으로 3.1운동의 발화가 가능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사히 인쇄가 다 끝나고 이제는 독립선언문을 각지로 배포하기 위해 수레에 인쇄물을 싣고 가던 중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순찰하던 일본경찰의 검문을 받게 된 것이지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그때 하늘의 뜻인지 때마침 정전이 되어 어둠속에서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칼로 수레를 쭈셔보고 찢러본 일본경찰에게 이종일 선생님께서는 우리집안의 족보라는 해명을 하시어 무사히 두 번째 위기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3.1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종일 선생님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분 이십니다.

천도교 조직을 이용하여 각종 비밀결사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하신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십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 꺾박받고 억압받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민족이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무력,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꾼 민족운동이자 무장 독립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염원하며 몸바쳐 싸우신 분들의 희생으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시조가 된 뜻깊은 역사입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을 기념하며 나라를 지킨 독립선열들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나이를 잃어버린 총지종 노보살님들

여순애
자석사 교도

아무도 자리를 정해준 건 아닌데 항시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 룰처럼 되어있다. 대부분 조용히 밥을 먹지만 웃음소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바로 노보살님들 식탁이다.
식사시간 내내 이야기와 웃음으로 밥을 드신다.
그래서 일까, 자석사 노보살님들은 연세를 알 수가 없다.
마음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젊으시다. 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노인 분들과는 다르게 젊은 에너지가 넘치신다.
지금의 나보다 밝은 얼굴을 하시고는 재미나게 사신다.
부처님을 믿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신 걸까.
한 번 여쭙 보고 싶기도 하다. 몸이 안 아프신 것도 아니다.
이 곳 저 곳 아프신 데도 일요일, 월초불공은 꼭 지키신다.
행복하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일까~ 젊은 보살님들이 그러는데 종교생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다도수업 때문에 정각사에도 한 번씩 가면 노보살님들이 열심히 불공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

총지종을 믿는 노보살님들이 의지가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힘든 수행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한 우리의 노보살님들 존경합니다.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수행이 모자라는 저로써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는 노령화 시대다.

우리 총지종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관계로 젊은 분이 그다지 많지가 않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다. 이제껏 젊은 보살이 해오던 불공의 일을 노보살님들이 하신다고.....

용맹 정진하는 모습은 어느 누구를 따를 수 없다 한다.

절에서 하루를 보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다.

웃으며 행복하게 사시는 그들의 삶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기에 젊음이 더 있는 게 아닐까.

노보살님들 건강하세요! 🙏



문제를 해결하고 떠나라

법상 스님



부처님께서 꼬삼비에 계시던 어느 날 부처님을 중오하던 왕비 마간디아는 불량배들을 매수하여 부처님이 탁발을 나오실 때마다 뒤를 따라 다니며 온갖 욕설과 비방, 침을 뱉는 등 거친 행동으로 못살게 굴도록 만들었다. 이에 아난다는 부처님께 이 도시를 떠나자고 간청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거절하며 말씀하신다.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릇 수행자는 문제와 소란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 문제와 함께 머물면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된 뒤에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 마치 싸움터에 나간 코끼리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맞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듯 여래는 어리석은 자들의 비난과 욕설을 피해 달아나지 않고 묵묵히 참고 인욕하되 다만 자신을 잘 다스림으로써 으뜸가는 성자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피해 달아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요 업장을 거부하는 것일 뿐이다. 삶의 진보와 깨달음은 주어진 삶의 문제를 통해 온다. 그 문제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아들여 풀어야 할 절호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그것은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며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도 같다.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방식을 따르라. 그 문제를 거부하지 말고 허용하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인정하고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끌어당기거나 밀쳐내지 않고,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내버려둔 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참된 인욕이란 그 문제가 너무 싫고 벗어나고 싶지만 억지로 참고 견뎌 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리 큰 문제는 아니었음을 깨달아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싫거나 좋다는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문제는 자신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 문제에 에너지를 쏟아 부어 실제적인 힘을 부여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내가 문제로 삼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문제를 문제 삼는 마음이 클수록 우리는 그 문제에 휘둘리게 된다.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는 말은 그 문제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무심하게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와서 어떻게 머물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다만 볼 뿐이다. 와서 머물고 가는 동안 우리가 거기에 과도하게 대응함으로써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빨리 소멸하고 만다. 그러나 그 문제와 맞붙어 싸우거나 도망치려고 애쓰게 되면 그 에너지를 먹고 그 문제는 더욱 커지게 된다. 바로 모든 문제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삼기를 너무나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야 실제 없던 문제가 실제적인 에너지를 가진 채 생명력을 부여받아 우리를 흔들어놓거나 조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장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움직인다. 깨달은 이는 업장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무분별로, 즉 중립적으로 지켜볼 뿐 거기에 대응하지 않는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은 채, 싸워 이기려거나 도망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업장이 일어나도록 무심히 허용하고 내버려 둔 채

다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업장이 올라와 잠시 나를 괴롭힐지라도 더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니 얼마 안 가 소리소문 없이 스트룩 사라지는 것이다.

업장과 문제들이 좋아하는 양분을 주지만 말라. 업장이 올라 오고 문제가 때때로 우리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다. 다만 그것을 좋아함으로써 붙잡아 집착하려 하거나 싫어함으로써 밀쳐내고 거부하며 도망치려 하는 두 극단적인 분별만 일으키지 않은 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싶은 만큼 충분히 있다가 가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 수심결에서는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으면 통연명백해 진다고 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 일어나도록 허용하되 분별 없이 지켜볼 때 모든 문제는 머지않아 해결된다.

다만 왔다가 머물고 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다소 견디기 힘들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삶의 목적이 바로 그것을 견디고 이해하며 그로인해 업장을 소멸하고 그 속에서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또한 아름다운 진리다운 길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고태바다요, 참고 견디며 인욕하는 세계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 인욕 뒤엔 무한한 보배와 깨달음, 행복과 평안이 깃들어 있다. ♫



참새가슴

- 이 성자·아동문학가

참새더러
가슴이 작다고
흉을 보지요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
참새가슴이 커 봐요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건
보나마나
욕심으로 커진
가슴 때문일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불공, 아직은 천지가 고요한 시각에 몸을 먼저 깨우고 그다음 정신을 일으킨다. 온전히는 일어나지 못한 정신으로 밤새 잠근 대문 빗장을 열기 위해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어디선가 마음을 부여잡는 맑고 또르르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얼핏 위를 바라보니, 새 한 마리가 전선위에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숲속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울음소리만큼 예쁜 노란 빛깔의 가슴을 가진 새 한 마리가 언제부터인지 이른 새벽을 깨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그 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3시 30분이라는 시각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었다. 며칠은 그렇게 즐기지만 하다가 동영상에 담아 두고 듣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주어야겠다는 욕심(?)에 마침내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인간의 부산스런 마음이 싫었는지 새가 그만 포르르 날아가 버렸다. 그런 후 한 이틀 새는 소리도 모습도 아예 보이지 않다가 다음 날은 겨우 울음소리만으로 자신을 드러내더니, 이제는 아예 보이다 안보이다 한다.

문득 짧은 경험이었지만 큰 깨달음 하나가 와 닿았다. 살면서 귀하거나 소중한 것 오래오래 지니고 싶은 마음일수록 조금은 멀리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 것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새처럼 작은 미물도 그 애착함을 거부하는데 사람은 어떠한 것인가...

49일이라는 정진의 기간을 회향하는 날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나의 애착에서 비롯된 많은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사소하지만 울림이 깊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

우리는 섯길을 택한 이들에게 빚지고 산다 1

박현희
사회과 교사



섯길은 죽음이라고?

빨간색 후드 코트를 입고 엄마 심부름으로 할머니 댁에 가는 소녀. 소녀에게 엄마는 신신당부를 했다. 섯길로 빠지지 말고 곧바로 할머니 댁에 다녀오라고. 섯길은 위험하니 절대로 만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소녀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섯길로 빠진다.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 도중에 만짓을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자신도 죽을

뻘하고 할머니도 죽을 뻘했으니 이 정도면 교훈을 얻었으리라.

어른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만짓하면, 정해진 길을 두고 섯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길 천국, 섯길 지옥”이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다 잘되었는데 그것으로 된 것 아닐까? 할머니도 살고 소녀도 살아났는데 왜 다들 호들갑이지? 이번에는 운이 좋아 살았지만 다음에도 운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때는 죽음뿐이라고?

‘반짝’ 뒤에 오는 근질거림을 견딜 수가 없어서

빨간 모자 이야기에서 내가 떠올리는 것은 ‘반짝’과 근질거림이다. 빨간 모자도 그랬을 것이다. 엄마가 심부름을 보내면서 빨간 모자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을 보며 나는 감을 잡았다.

빨간 모자는 수차례 다른 길로 섯 경험에 있는 전과자일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할머니께 가져다 드릴 음식이 든 바구니를 떨어뜨리거나 더럽히지 말라는 충고 대신 다른 길로 새지 말라고 당부했겠지. 빨간 모자도 처음부터 다른 길로 섯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이미 다른 길로 섯다가 겪었던 고난의 경험은 빨간 모자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빨간 모자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곧장 큰길로 빨리 할머니 댁에 가서 어머니의 심부름을 깔끔하게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들판 도처에 핀 예쁜 꽃들을 보는 순간, 그리고 여기저기로 끝을 알 수 없이 펼쳐진 샛길들을 보는 순간, '반짝'이 찾아왔겠지. 처음에는 참았을 것이다. 엄마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길을 잃고 헤맸던 지난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반짝'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부터 근질거림이 빨간 모자를 덮쳤겠지. '잠깐만, 아주 잠깐이면 될 거야.' 빨간 모자는 이렇게 되뇌며 샛길의 유혹에 빠져들었을 것이고, 그 뒤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죽을 고생을 했고 다시는 샛길로 빠지지 말라는 교훈을 뼈아프게 새긴다.

그렇다고 해서 빨간 모자가 다음부터 큰길로만 갔을까? 천만의 말씀, 빨간 모자는 얼마 가지 않아 또 다른 샛길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샛길족의 유전자를 탑재하고 태어난다.

가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지만 사회가 우리에게 허락한 길들을 그중 몇 개로 한정되는지라 우리는 늘 샛길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떤 이는 쉽사리 그 유혹을 물리친다. 그들은 큰길을 벗어나는 샛길족의 어리석음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샛길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건대, 큰길족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샛길족에게는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 이견 의지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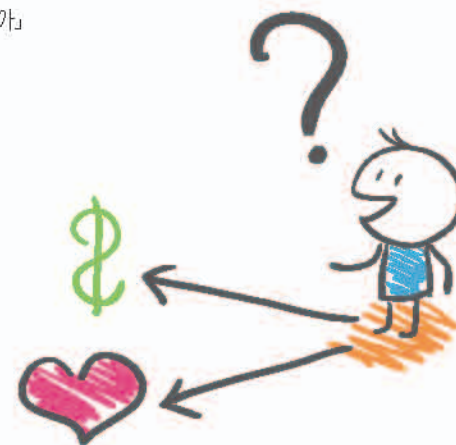
샛길족들은 원래 큰길에 서서 다른 길에 유혹받도록 태어났다. 인류 진화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 인류의 조상은 나무 위에서 살았다. 기후 변화로 나무 위 살만한 거처들이 차츰 줄어들자, 이들은 중대한 선택

에 직면했다. 나무 위에서 근근이 삶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땅으로 내려와 모험을 감행하든가, 대다수는 큰길족이었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어렵사리 영위하는 삶을 선택했다. 나무 위의 삶이 그 당시의 큰길이었으니까.

일부 샛길족, 즉 빨간 모자들이 나무에서 내려왔다. 이들 앞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크고 사나운 짐승들이 모험을 택한 이들을 위협했다. 나무 열매같이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먹을거리도 별로 없었다. 이들은 땅을 파헤치고 들판을 달리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길고 긴 세월이 흘렀다. 나무에서 내려와 모험에 가득 찬 삶을 택한 샛길족들은 인간으로 진화했다.

우리는 모두 그때 나무에서 내려와 새로운 삶을 택한 샛길족의 후손이다. 그러니 우리가 샛길의 유혹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것은 타고난 운명이라고 할 수 밖에.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차와 함께 하는
육법공양 六法供養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육법공양이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온 불교의 6가지 공양을 뜻하며 그 유래는 대방광불화엄경 말미에 “인도스님인 연기조사가 국태민안과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법회를 열었으며 이 법회에서 대중들이 향, 등, 차, 꽃, 과일, 쌀의 여섯 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렸다”는 기록을 토대로 이어져, 지금은 부처님 오신 날에 전국의 사찰에서 육법공양 시연을 식전행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양의 의미가 작게는 밥을 지어 올리거나 먹는 일을 뜻하기도 하지만 육법공양은 부처님께 올린다는 것으로 부처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발원하며 부모와 모든 생명들을 위해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다양한 공양물을 올리는 것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양을 받는 분, 공양을 올리는 분, 올리고자 하는 공양물, 이 모두가 깨끗해야 합니다. 육법공양에서 보편적으로 올리는 공양물은 등, 향, 꽃, 과일, 차, 쌀, 여섯 가지입니다. 이 여섯 가지 공양물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공경을 의미하며 여섯 가지 깨달음의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서원을 담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중 차와 꽃 공양의 전통은 다도와 불교 꽃꽂이로 발전되어 오늘날 별도의 문화 예술적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육법공양의 의미와 계승(偈頌, 불교적 교리를 담은 한시의 한 형태)

1) 향공양

향은 해탈향(解脫香)이라고 해서 해탈을 의미합니다. 향 공양은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 자재한 경지에 이르는 해탈을 상징하며 자신을 태워 주위를 맑게 하므로 희생을 뜻하기도 하고 화합과 공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2) 등공양

등은 보시를 나타내고 지혜의 등불을 의미 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물리치듯 지혜와 광명이 무명의 어둠을 밝혀 길을 헤매는 중생들을 위해 지혜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찬탄하는 공양입니다.

3) 꽃 공양

꽃은 인욕^{忍欲}을 나타내며 보살행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꽃 공양은 만행을 상징하며 부처님 도량을 아름답고 장엄하게 찬탄함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꽃을 피워야 하며 꽃이 열매를 맺기 위해 오랜 인욕을 거치고서야 결과를 맺듯이 노력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꽃 공양을 할 때 올리는 꽃의 다른 별칭을 만행화^{萬行花}라고 합니다.

4) 과일 공양

과일은 정진을 나타내며 깨달음(보리과,菩提果)을 의미합니다. 과일은 오랜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물이듯, 지극한 수행이 열매 맺기를 바라며 바른도를 성취하겠다는 정진을 표현하며 갈고 닦은 수행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를 소멸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5) 쌀* 공양(선열미,禪悅米)

쌀은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선정을 통해 얻는 기쁨과 환희를 상징하고 부처님께서는 사시에 한번 공양을 드시었고 쌀 공양은 시주의 은혜를 들고 줄이고 힘써 정진함을 뜻합니다.

6) 차*공양

차는 선정을 나타내고 열반의 맛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차는 감로다^{甘露茶}라 하여 하늘에서 내린다는 단맛의 이슬이라 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약^{不死藥}이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차 공양인데 차를 우려 공양하거나 감로로 씻어 올린 다기 물은 우리 마음의 모든

오욕을 깨끗이 씻어 내는 청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이 만족스럽고 청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로의 청정한 물은 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므로 감로의 근원인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것입니다. 1

육법 공양계

등을 공양 올리오니 이등불은 지혜의 광명이 되어
깨달음의 세계가 빛나기를 원하옵니다.

향을 올리오니 이향은 해탈의 향이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옵니다.

꽃을 공양 올리오니 이 꽃은 선행의 꽃이 되어
자리아타 행을 성취하기를 원하옵니다.

과일을 공양 올리오니 이과일은 자비의 열매가 되어
끝없는 공덕을 베풀기를 원하옵니다.

백미를 공양 올리오니 선열미는 기쁨과 환희가 되어
법의 즐거움을 누리기 바랍니다.

차를 공양 올리오니 이 차는 감로의 차가 되어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기 발원 하옵니다.

이 여섯 가지 공양을 법답게 장엄하게 공양하오니
자비와 지혜로 저희들의 정성 받으시옵소서.

- 참고문헌, 적연스님<불교디례> -

아직은 산에 오르고프다

김정숙
자석사 교도

얼마 만인가..!!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니.

자연과 더불어 산길을 걷노라면 최상의 기운을 얻는 듯하다. 산등성을 오를 적에 온몸에서 배어나는 열기와 땀기운이 시원한 바람 한줄기에 씻겨져 나갈 적엔 쾌감마저 느껴지며, 가파른 내리막에선 두려움마저 감당해야 하지만, 하산 후에 느끼는 노곤함과 땀가득 뿌듯함이 자리하기에 산행의 묘미를 잊을 수가 없다.

2017년 12월 무학산을 끝으로 총지산악회의 산행이 회원들의 고령화(?)로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갈 수 없었음에, 크나큰 아쉬움과 미련을 남겼기에 늘 가슴 한 켠엔 산행에 대한 갈증이 남아 있었나보다.

오늘의 산행은 완전 꿀맛이다.

1년 여 만에 다시 찾은 산행길.

황령산은 부산 근교에 있는 비록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높이 427미터로 낮은 산이지만, 산세는 그 어느 산 못지않게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 품속같은 아늑한 산이기도 하다.

산 정상인 봉수대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안대교와 이기대, 해운대 앞 바다의 푸른 정경들, 뽕뽕히 들어찬 아파트와 주택들이 한 눈에 펼쳐지니 속이 땡 뚫리는 느낌이다 또한 잃어버릴 뻔한 산행의 즐거움을 안겨주었기에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

아직은 산에 오르고프다.

나이를 잊고 살고프다.

오늘의 산행을 다시 할 수 있게 건강을 되찾아 준 헬스케어 공간인 나비엘에도 감사하고, 나비엘로 길을 열어주신 우리 부처님께도 감사하다. 특히나 동행해 준 친구에게도 감사할 일이다.

인생 3막에 자연과 친구를 벗 삼으며 세월을 건지고 있으니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온통 감사할 일들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도 그간 매사에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나를 다시 돌아보며, 나 또한 누군가에게 감사한 존재로 남아 선한 마음으로 선업을 지으며 살아야겠다.

지나온 3년 동안 산행의 즐거움과 소중한 추억을 심어준 총지산악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프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산 정상에서 봄의 전령사인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 군락을 다시 볼 수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하다!! 🌸



그 자신이 그것이 될 줄은 모른다

법일 정사
수인사주교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보다 큰 지식을 찾아 떠나기로 했다. 스승이 그에게 남쪽으로 가라 하시며 “공작과 뱀의 의미를 찾아라” 명하였다.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길을 떠났다. 그는 먼 여행 끝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고, 정말로 공작과 뱀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가 말을 걸자 “우리들 각자의 장 점들에 대해서 우린 지금 토론하고 있소.”

“오, 그거야 말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요. 어서들 계속해 보시죠” 젊은이가 말을 했다.

공작이 뱀에게 말하기를 “나는 천상의 아름다움, 지고한 지혜의 열망을 상징하오. 사람들에게 그러한 측면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내 임무요”

“나는 공작과는 다른 면으로 훨씬 더 중요한 존재라 생각합니다.” 뱀이 섯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나는 사람처럼 땅을 벗어나지 못하오. 이러한 측면은 사람들



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나는 또한 사람처럼 유연해서 꾸불꾸불한 길을 잘 가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오. 옛 부터 나는 땅에 숨겨진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요”

이 말에 공작은 “그대는 얼마나 징그러운가. 그대는 교활하고 음흉하고 위험하오” “그것이 바로 나의 특성이오”하며 뱀이 소리 쳤다. “공작, 그대는 헛되고 허황되고 아주 거친 목소리를 갖고 있소. 발은 너무나 크고 깃털도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소”

이때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젊은이가 그들을 가로막고 나섰다. “내가 보기엔 순전히 그대들의 의견 차이일 뿐이요. 뱀이 탐욕스러운 것처럼 사람도 높이 올라가면 탐욕과 이기심을 갖게 되고, 공작처럼 자만하게 되오”

군중에 있던 한 이가 말하였다. “이 두 동물은 각자 타고난 성품대로 각자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여, 자만하며 서로 싸우는 것이요. 뱀은 보물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용할 줄 모르고, 공작은 아름다움과 보물을 상징하지만 그 자신이 그것이 될 줄은 모르지 않소.”

뱀이 보물을 지키기만 하듯이, 공작이 보물을 상징하기만 하듯이, 내 삶을 지키고 상징하기만 하는 삶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다. 내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

금강계만다라 37존(2)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16 공양보살은 4바라밀보살, 8공양보살, 4섭보살로 나뉜다. 4바라밀보살 가운데 금강바라밀보살은 청정한 보리심의 활동을 근본으로 하여 대일여래에 공양되며, 보바라밀보살은 공덕과 보배관정의 활동으로 공양된다. 법바라밀보살은 청정한 법의 기쁨을 대일여래에 공양하는 것이며, 업바라밀보살은 활동성을 가지고 공양하는 정진바라밀의 역할을 상징한다.

8공양보살에서 내부의 4공양보살 가운데 금강희희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에 대해 환희하며 스스로 보리심을 견고히 함으로써 공양한다. 금강만보살은 보리심의 원만한 덕을 꽃다발로 찬탄하며, 금강가보살은 일체사실에서 미묘한 설법을 듣는 지혜로 노래를 들려줌으로써 증장시킨다. 금강무보살은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춤을 추는데 이것은 모든 부처님에 대한 최상의 오묘한 공양이다.

8공양보살에서 외부의 4공양보살 가운데 금강향보살은 보리심의 활동으로 번뇌를 정화하며, 금강화보살은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역할, 금강등보살은 지혜의 등불로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금강도향보살은 번뇌의 때를 없애어 청량을 얻는 활동을 각각 나타낸다.

4섭보살에서 금강구보살은 중생을 깨달음의 성에 불러들이고, 금강색보살은 불러들인 유정을 잘 인도하여 이익을 주며, 금강쇄보살은 중생을 깨달음의 성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며, 마지막으로 금강령보살은 깨달음의 성에 머문 중생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금강계만다라의 37존이 낱알의 활동을 그룹 별로 전개할 때에 조화로우면서도 독특한 작용에 의해서 이 세상에 만다라세계가 건립되는 것이다. 금강계만다라는 바로 이러한 조화의 세계를 한 폭의 장엄한 광경으로 연출한 것이다. 1

燈 등 - 등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각 사찰에서 등불을 밝힌다. 등불은 등불 또는 등명(燈明)이라고 하며, 공경의 표시로 부처님이나 불탑 등에 올리기도 한다. 사찰의 각 전각의 주변이나 도량에 밝히기도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는 거리 곳곳에도 등을 밝힌다.

등불을 공양함으로써 얻는 공덕은 매우 크다. 등불은 주변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중생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공덕이 있다. 따라서 등불을 지혜로 비유한다.

<대반열반경>에는 “번뇌의 어두움에 가리어져 중생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훌륭한 방편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여러 보살들로 하여금 열반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을 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며 등불을 지혜로 비유했다.



공덕에 대해서는, <분별선악보응경>에 잘 나와 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등불을 보시하여 부처님의 사리탑에 공양한다면 열 가지의 공덕을 얻는다.”

첫째 육안(肉眼)이 청정해지고, 둘째 청정한 천안(天眼)을 얻으며, 셋째 삼독(三毒)을 여의고, 넷째 여러 선법을 얻으며, 다섯째 총명해지고, 여섯째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게 되며, 일곱째 어두운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지지 않고, 여덟째 존귀한 사람이 되며, 아홉째 여러 천(天)에 왕생하고, 열째 원적을 속히 증득한다.

<현우경>에는 가난한 여인 난다의 등불이야기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등불을 공양하였으나 밤이 되자 다른 등불들은 모두 꺼졌지만, 오직 등유를 살돈조차 없었던 가난한 여인 난다가 정성껏 올린 하나의 등불만이 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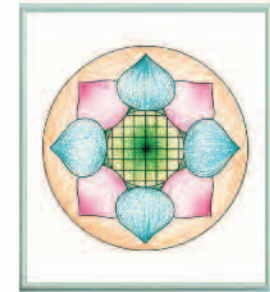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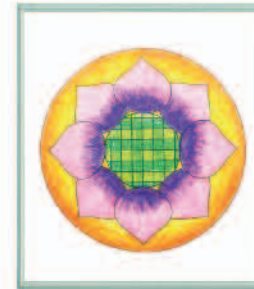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김수진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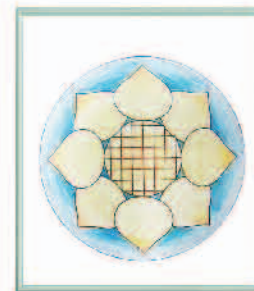
▲ 서울 이해지 님



▲ 벽룡사 손정원 어린이



▲ 벽룡사 공희견 어린이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홍지중 홍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5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읍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오순자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종조법설집

제2장 수행편 p.132

마음이란 것은 자유自由를 본질本質로 한다.

비유比喻하면 뜻과 같이 안될 때는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다.

그런데 소인小人은 망심妄心으로서 자유自由로 하고 성인聖人은 본심本心으로서 자유自由로 한다. 중생衆生과는 정반對 반대反對이다.

자존심自尊心의 자유自由는 독재獨裁탐심貪心의 자유自由는 간인慳吝과 도탐盜貪
향락享樂의 자유自由는 타락墮落진심瞋心의 자유自由는 폭행暴行과 살생殺生
아집我執의 자유自由는 반항反抗과 자존自尊 언어言語의 자유自由는 망어妄語,
기어綺語, 양설兩誑, 악구惡口 비방誹謗

이런 것들을 행行할 때는 쾌快한 것 같겠지마는 행行한 후後에는 불쾌不快한
것이다. 본심本心の 자유自由는 망심妄心을 억제抑制하는 까닭에 행行할 때는
불쾌不快하나 행行한 후後에는 쾌快快樂하며 선자善者는 재화財帛을 초래招來하나
후자後者는 복덕福德을 얻게 된다. 이것들은 갈지 아니한데 있는 것이고
진심眞心과 망심妄心이 다르므로 그렇게 되느니라.



깨달음의 길이 열린 '부처님오신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서 탄생하셨다.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걸음을 걷고 난 뒤,
두 손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사자후를 외쳤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생명 존귀하다.
세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자비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홍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른 켄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제 몸을 태운다.
한순간의 성난 마음은
능히 착한 마음을 태운다.

- 범구경 -